



변화와 도전의 고시계

수험생들의 정다운 동반자인 月刊『考試界』가 어언 반세기를 지나 금년으로 창간 59주년 및 지령 700호를 맞이하였다. 月刊『考試界』가 창간되던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 법학이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었고 교과서조차 변변한 게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니 수험정보라는 것도 제대로 있을리 만무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유일한 정보동반자가 바로 月刊『考試界』였다. 지난 세월의 풍상을 거치면서도 月刊『考試界』가 면면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내용과 빠른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고등고시 시대를 거쳐서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시대에 이르기까지 月刊『考試界』는 바로 수험생과 법학도를 비롯한 사회과학도들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다.

그 사이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월간 수험지가 명멸해 갔지만 이제는 月刊『考試界』만이 유일한 월간 수험지로 존속하고 있다. 그만큼 세상도 변하고 수험가도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月刊『考試界』는 그 역사의 풍랑 속에서도 면면히 오늘날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月刊『考試界』만이 갖는 역사성과 시대정신의 결과이다.

月刊『考試界』는 단순히 수험지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학의 위상과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月刊『考試界』에 게재되는 법학자와 실무자들의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 법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새로운 이론에 목말라 하는 수험생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에 충분하였다. 더구나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교수님들의 특집 및 특강은 月刊『考試界』가 단순히 수험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발전의 향도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법학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월간지가 변변치 못한 상황이라 月刊『考試界』는 그 간극을 메워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다하였다고 자위할 만하다.

현대사회에 불어 닥친 정보전쟁은 수험가에도 예외가 아니다. 월간지에 만족하지 않고 주간 수험지가 양산되고 있고, 더 나아가 인터넷 수험정보도 넘쳐난다. 그러나 월간지를 통한 정보의 접근이란 이미 구문(舊聞)이 되어버린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月刊『考試界』만이 배출하는 양질의 고급정보는 여전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月刊

성낙인

- 한국공법학회 회장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 현) 서울대학교 총장



『考試界』의 위상과 좌표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라 움크려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급 법 이론의 장을 펼쳐온 月刊『考試界』 또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월간 또는 계간의 형태로 발행되는 수많은 전문 법학지와 각 학회에서 왕성하게 간행하는 학회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月刊『考試界』만의 독특한 법이론 제공의 장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래도 月刊『考試界』에 게재되는 간단명료한 논설은 수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소중한 보고로 자리 잡고 있다.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고시합격자들이 제공하는 모범답안과 그에 대한 교수님들의 강평은 月刊『考試界』만의 독특한 존재양식이면서 동시에 독보적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관한 한 그 어느 수험정보지도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고시 합격자들이 제공하는 살아 있는 모범답안과 권위 교수님들이 내 놓는 강평은 여전히 수험생들의 소중한 지침이 되고 있다. 특히 역경을 딛고 일어난 합격생들의 생생한 합격기는 때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합격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분발한 수험생들은 다시금 스스로 합격자로서 합격기를 이어왔다. 이제 그 합격기라는 격문을 쓴 수험생들조차 이미 은퇴 연령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세월의 풍상을 그쳐간 셈이다.

하지만 2009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원과 변호사시험의 실시 및 2017년도에 폐지될 사법시험으로 인하여 月刊『考試界』의 예전의 명성과 좌표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내외적으로 어려운 과도기에 처한 月刊『考試界』 창간 59주년 및 지령 700호는 이제 더 이상 축하의 장으로만 머물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月刊『考試界』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이를 개척해 나감으로써 옛날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언제나 개척자적 정신에 입각하여 59년 이상을 지행해 온 月刊『考試界』의 발전사에 비추어 본다면 새로운 응비를 그려보는 것이 그 동안 月刊『考試界』를 사랑하는 독자들의 바램일 것이다.